

담양군, 폐현수막 재활용 농작물 화분 제작 보급

블루베리 묘목 등 수요 맞춤형 관내 원예농가 75곳 700개 선지급 환경오염 예방 경영비 부담 도움 지난해 가방·우산 등으로 재활용

담양군이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농작물 화분을 제작, 농가에 배부해 탄소중립 실천과 농가 경영비 경감에 보탬이 되고 있다.

7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미싱동아리 '쏘잉스쿨'과 함께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한 '농작물 화분' 700개를 지난달 원예 농가에 배부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부식포 화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된 '폐현수막 농작물 화분'은 올해 초 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9320개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올해는 700개만 우선 제작해 희망 농가 75곳에 배부했으며 군은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개선할 사항을 조사해 동아리 회원들과 개선된 폐현수막 농작물 화분을 제작할 예정이다.

'폐현수막 농작물 화분'은 매년 발생하는 폐현수막 처리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블루베리 등 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담양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주민의 손을 거쳐 쓰임을 다했던 폐현수막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농자재로 다시 태어나 탄소중립 실천에 한 발짝 다가가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폐현수막의 다양한 재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현수막은 재질 대부분이 폴리에스테르 또는 특수 코팅 처리를 한 텐트



담양군 관계자들이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농작물 화분을 농가에 전달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천으로 소각할 때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매립할 때는 썩는 데만 50년 이상 걸린다.

담양군에서는 지난 한 해 3090장의 폐

현수막을 수거, 이를 재활용해 가방, 우산 등을 만들어 활용하며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왔다.

담양=신재현 기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장성군, 29일까지 접수

장성군은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겠다고 7일 밝혔다.

이의신청 기준일은 올해 7월 1일이다.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용필지분에 대해 m²당 단위가격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지가'를 입력한 뒤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지번을 넣으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이용도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12월 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3)로 하면 된다.

장성=유봉현 기자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해남군, 지역 경관 강조 디자인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해양관광벨트의 거점이 될 생태정원도시로 조성된다.

해남군은 지난달 21일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번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생태정원도시 조성은 정원의 개념을 도시 전체로 확장한 새로운 도시건설의 패러다임으로 지역과 도시의 개성이 드러나는 차별화된 자연·문화·도시 경관이 정원이 되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거점도시에 생태정원도시를 조성해 정주여건의 개선과 관광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으로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는 대통령 지역 공약 및 산림청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1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3년부터 5년간 국비 200억 원을 포함해 총 400억원이 투입된다.

해남군은 인구유입을 통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정원을 기반으로 한 생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내 58만 m²에 조성될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는 진입 관문으로서 랜드마크가 될 서남해상정원, 활동성을 강조한 영암호 수변정원, 생태경관을 담은 도시와 자연의 연결부가 될 금호호 생태정원, 산자락과 숲을 도심 중앙으로 끌어들이는 구성리 숲정원, 그린 인프라가 접목된 가로숲정원의 공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기후위기와 팬더믹 영향에 대응한 탄소중립, 스마트 등 개념을 연계하여 생태도시, 환경도시, 도시숲, 정원길 등 다양한 주제의 정원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솔라시도기업도시에는 올해 개장한 산이정원을 비롯해 9개의 민간 정원도 조성되고 있어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사업과 맞물려 도보 10분 이내에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정원도시로의 지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지난 중간보고회 및 기술자문단 의견인 해남의 경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구체화했고 산림청·전남도와 협의 의견인 유지관리 운영계획 등에 대한 기본 내용을 제시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함평군 관계자들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관내 소외계층 24가구에 땀감 25톤을 지원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소외이웃 땀감 전달

함평군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지역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소외계층 24가구에 땀감 25톤을 지원했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공공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 일부를 땀감으로 준비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지역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함평군의 땀감 지원은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산림 내 가연성 물질을 사전 제거해 산불 등 산림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주민들의 큰 호

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과 산불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나뉘드린 땀감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나주시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대표이사·이사·감사 등

나주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상 속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나주시문화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재단 사무실 마련에 이어 대표이사 공모 등 본격적인 재단 조직구성에 착수한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총 14명의 임원진을 공개 모집한다.

재단 임원추천위는 지난 10월 31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임원 공개모집 계획을 의결했다.

모집 대상은 대표이사 1명, 이사 11명,

감사 2명이다.

나주시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시민이 가치를 공유하는 도시'라는 비전과 민선 8기 시정 방침 중 하나인 '융성하는 문화관광' 실현을 위한 중장기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지역 문화·예술자원 전반에 대한 조사·진단과 문화예술분야 정책 개발, 창작·보급 활동 지원,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전문 인력 양성, 문화자원 보존, 자금 조성 및 운용 등의 기능을 담당할 방침이다.

재단 대표이사는 이사장(나주시장)을 보좌하며 재단 업무를 총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상근 이사직이다.

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감사는 회계·

사업에 대한 감사직무를 수행한다.

재단 임원 응모는 오는 19일까지 나주시정 문화예술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 공고 및 제출서류 서식은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재단법인 나주시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임원 공개모집 이후 창립총회, 정관의결, 임원 임명, 법인 설립, 직원 채용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재단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시문화재단을 통해 문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미래먹거리 문화산업 분야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며 "재단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코로나19 대비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접종 광양시, 11일부터 시작

광양시는 오는 11일부터 면역저하자 영유아(6개월~4세)의 영유아용 화이자 JN.1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영유아용 화이자 JN.1 백신 접종 예약은 의료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 접속한 뒤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용 화이자 JN.1 백신은 이전에 접종한 화이자 백신(초기주, XBB.1.5 백신) 접종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접종해야 한다.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2회 이상 접종한 영유아는 신규 백신으로 1회, 화이자 백신으로 1회 접종한 영유아는 신규 백신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다.

접종력이 없는 영유아는 모더나 JN.1 백신(2회)과 화이자 JN.1 백신(3회) 중 하나를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광양시 보건소는 24~25월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백신 유효기간에 따라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mRNA 백신 접종 관련 금기자와 연기자 등은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박양숙 보건행정과장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의 보호자와 가족분들은 접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